

# 호남 최초 게임전시회 '지투 페스타' 성료

### 3일 간 관람객 1만3,000여 명 찾아 기업 42개사 참가 96개 작품 전시

호남지역 최초의 게임 전시회 'G² FESTA(지투 페스타)'가 3일 간 1만 3,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으며 2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호남 최초의 게임전시회 'G² FESTA(지투 페스타)'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으로 개최됐다.

호남권의 가상현실 기술 기반 체험형 게임과 기능성게임 기업 42개사가 참가해 96개의 작품을 체험형 게임존, 기능성

게임존, 모바일/PC게임존 인디 게임존, 코딩/보드게임 존 등 총 5개 섹션에 전시했다.

테마파크형 전시회를 표방한 이번 행사에 가장 많은 콘텐츠를 전시한 체험형 게임존과 기능성 게임존에는 가상현실 FPS게임(1인칭 슈팅게임), 교육 콘텐츠, 가상현실 체험관 콘텐츠 등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 기존의 게임 전시회와는 차별화된 가상현실 경험을 체험하는 장이었다.

모바일/PC 게임존과 코딩/보드게임 존은 다양한 보드게임과 코딩교육에 가



호남지역 최초의 게임 전시회 '지투 페스타'가 2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족단위 관람객이 많이 찾았다.

특히 어린이 대상 코딩 교육에 많은 자녀 동반 관람객이 주로 찾으면서 최근의

코딩교육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주 무대에서는 개그맨 김기열과

현장 관람객들이 즉석에서 '배틀그라운드', '테일즈런너', '프리스타일2: 플라잉탱크' 등의 인기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대결하는 스페셜 매치에는 대회 200석의 관람석을 가득 차면서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정현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가상현실 콘텐츠만으로 이 정도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시회 규모나 B2B기능의 강화 등 통해 국제적인 규모의 가상현실 콘텐츠 전시회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² FESTA(지투 페스타)'는 올해 광주 행사에 이어 내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열리며 매년 교차 개최될 예정이다. /유형동 기자

## 주목! 이사람



**박태선 농협 전남본부장은** 27일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사)고향주부 모임 전남도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김일수 농협 광주본부장은** 3월 1일 광주 시청에서 열리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한다.

## 관세청, 중기 FTA 무료 상담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자유 무역협정(FTA)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업무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자유 무역협정(FTA)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업무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자유 무역협정(FTA)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업무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자유 무역협정(FTA) 공익관세사의 무료 상담 업무를 진행한다

## 전남우정청, 장학금 수여식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26일 광주·전남지역 별정우체국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별정우체국 장학금 수여 및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별정우체국중앙회 전남도회(도회장 윤철성)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청소년 20명과 사회복지단체 1곳에 1,700만 원의 성금을 쾌척했다.

또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꿈꾸는사람들 장애인공부방'에 각각 3백만 원의 사랑의 성금을 기부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장학금 및 사랑의 성금 전달식'은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광주·전남지역 121개 별정우체국 직원 600여 명이 매년 꾸준히 모금한 성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총 2억 7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 공공계약 선금 한시적 확대

### 기재부, 경기부양효과 기대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도록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도록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특례를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금은 공사, 제조,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을 납품업체가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선금의 비율을 기존보다 10% 포인트 인상한다.

예를 들어 20억원 미만의 공사 계약인 경우 선금 지급 비율이 50%에서 60%로,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인 경우 선금 지급 비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도 단축한다.

기재부는 이런 조치가 즉시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4000' 출시

### 삼성전자, B2B 시장 겨냥...부딪힐 염려 없는 벽걸이형

삼성전자가 최근 학교·병원 등 공기청정기 수요가 다변화됨에 따라 B2B 시장을 겨냥한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4000'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한 '블루스카이 4000'은 벽걸이형으로 제품 설치 공간에 대한 고민을 덜어 주고 어린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서도 제품에 부딪힐 염려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실내 청정 수준에 맞게 자동으로 풍량을 조절해 35dB(데시벨) 이하의 저소음으로 운전하는 '저소음 학습 모드'가 탑재돼 교실·독서실 같은 학습 공간이나 병원같이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블루스카이 4000'은 '6중 청정 시스템'을 통해 각종 유해물질을 빠르게 제거함으로써 차별화된 청정기능을 자랑한다.

극세필터로 생활 먼지와 반려동물의 털 등 입자가 큰 먼지를 우선 걸러낸 후 숏 탈취 필터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과 유해가스, 각종 악취를 제거한다.

미세먼지 집진 필터로 0.3μm(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입자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또 전문 계측 장비 원리를 활용한 '레이지 PM1.0 센서'가 탑재돼 지름 0.3μm의 미세먼지가까지 정밀하게 측정하고 가스 센서로 유해가스 오염도까지 감지해

실내 '중합 청정 지수'를 4단계 색상으로 표시해 준다.

'블루스카이 4000'은 와이파이 연결을 기반으로 한 IoT 기능도 탑재돼 '스마트 싱스(Smart Things)' 앱을 통해 외출 중 실내 공기 상태 확인, 원격제어, 필터 교체 주기 확인·구매 등을 간편하게 실행해 준다.

'블루스카이 4000'은 청정면적 99㎡, 85㎡ 2개 모델로 출시되어 평균 면적이 67.7㎡인 일반 교실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으로 전기 사용료 절감에도 탁월하다. /서미애 기자

##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 선임

한국농어촌공사는 제9대 신임 사장에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고 26일 밝혔다.

최 사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17·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활동 기간 쌀 목표가격 제 개선,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담 수령 방지책 마련,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로사업 확정 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농어촌공사는 설명했다.

## 호남 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개최

### 좋은 공간, 김대중센터서 5월 25일~27일까지

'2018 호남 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가 오는 5월 25일~27일 사흘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6일 주최사 좋은공간에 따르면 호남 최대의 '2018 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in 광주·전남'은 국내외 유명 프랜차이즈 및 창업 관련 회사, 유망 사업 아이템, 관계기관 등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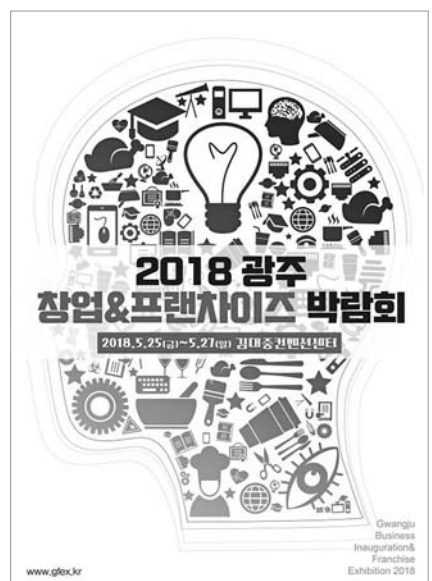
올해에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독특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한다.

전시구성은 약 70개 업체 140여부스로 그동안의 박람회보다 볼거리가 풍성해졌다.

또 이번 전시회에는 의식, 유통, 서비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와 아이디어 창업 관련 업체들로 구성됐다.

특히 광주 및 전라북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최사 좋은공간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창업활성화 및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했던 예비창업자, 기존창업자, 업종전환예정자를 위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신생중소기업에게 마케팅지원을 통해 호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



2018 호남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오는 5월 25일부터 사흘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여하여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창업박람회 참가를 통해 국내·외 유력 협력파트너들을 만나 협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관람 및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호남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사무국(홈페이지 www.goodspace.asia) 또는 전화(062-371-3511)로 문의하면 된다. /유형동 기자

## aT, 식품기업 상품가격결정·운영실전 과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 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오는 3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실시하는 '식품기업 상품가격결정 및 운영실전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 과정은 기업 수익과 판촉 전략의 중요요소인 상품의 가격을 가장 적정한 선에서 결정하는 것을 돕는데 목표를 두고 지난해 신설하여 약 160% 모집경쟁률을 보인 교육과정이다.

교육내용은 ▲제품 단위당 가격구조 ▲제조원가를 포함한 원가의 기본적 이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격결정 방법(비용중심, 고객중심 등) ▲

판매채널에 따른 입점 가정 실습 등이다.

과정은 수료하고 나면 자회사 상품의 최적가격 결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제조, 가공, 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마케팅 관련 관리자 및 실무 담당자 등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하고 교육비는 무료이다.

1박2일, 총 13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형동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2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에서 대표회원을 비롯한 내외귀빈 및 포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 전문건설 전남도회 정기총회

### 오중순 회장 "전남전문건설인 생존권 수호 최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회장 오중순)는 2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에서 대표회원을 비롯한 내외귀빈 및 포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 김기태 전라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박정환 광주지방조달청장 및 시·도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 및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 표창 등 38업체에게 포상을 행

했다. 특히 전남도회는 전국16개 시·도회 중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 시·도회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우수 시·도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또 회원사 및 전라남도내 복지재단 대학생 등 78명에게 7,5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장학회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3,651명의 학생들에게 30억6,62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서미애 기자

## 전남진흥원, 장년층 예비창업자 모집

### 전남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입주·자문지원 제공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이하 진흥원)이 '전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목포)'에 입주할 지식서비스 분야 장년층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26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집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창업 교육 및 경영·세무·마케팅 등 분야별 자

문지원을 제공한다.

입주 신청은 현재 타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만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으로 IT·게임·출판 및 정보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자, 정부 및 유관기관 1인 창조기업관련 지원을 받는 자는 사업 참여제한으로 신청할 수 없다. /유형동 기자